

항공사(史) 세계 최초의 기록을 찾아라!



자전거 수리공이던 라이트 형제가 사상 첫 비행에 성공한 날은 1903년 12월 17일이다. 이날 이후 항공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10여 년 뒤에는 항속거리가 1천km에 이르게 된다.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은 항공기 제작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은 원자폭탄 투하도 항속거리가 1만km에 육박해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B-29 전폭기에 힘입은 바 크다. 병력과 물자 수송, 폭격과 공중전에 이용되던 항공기는 전후 민간 수송 분야의 총아로 떠오른다. 세계 항공산업 100여 년의 역사 속에 녹아 있는 최초의 기록들을 찾아 소개한다.

글 장성배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센터, KLM네덜란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퍼시픽항공

1 최초의 항공사는 KLM네덜란드항공

현존하는 항공사 중 가장 오래된 곳은 KLM네덜란드항공이다. 한반도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10월 7일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사로 발족한다. 설립자는 파일럿 출신의 엘버트 플레스먼(Albert Plesman) 박사였다.

KLM은 정식 명칭에 '로열(Royal)'이 들어가는데, 이는 설립 당시 네덜란드 왕실의 빌헬미나(Wilhelmina) 여왕이 승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인연으로 지금도 네덜란드 왕실은 KLM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KLM과 비슷한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민간 항공사가 등장해 런던-파리 구간을 운행하지만 경영난으로 모두 문을 닫고 만다.

KLM은 설립 이듬해 5월 17일 암스테르담-런던 구간에 취항한다. 90년이라는 긴 역사만큼 보유한 세계 최초 기록이 술하다. 1921년 최초의 항공권 예약 판매소 개설, 1924년 최초로 유럽-아시아 구간 운항 등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 또 좌석이 모두 동일한 기내에 요금이 2배 정도 비싼 비즈니스클래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세계 최초로 퍼스트클래스를 없앤 곳도 KLM이다.



KLM네덜란드항공의 초창기 프로펠러 항공기



아시아나항공은 2006년 국내 항공사 최초로 기내에 요리사가 탑승해 초밥을 만들어주는 기내 셰프 서비스를 선보였다.



2 밥솥을 갖춘 최초의 항공사는 캐세이퍼시픽항공

최초의 기내식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영국의 항공사가 파리-런던 구간에서 제공한 샌드위치 박스로 알려져 있다. 종이 상자에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넣어 승객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고 한다.

기내식은 1950년대 초반 제트 여객기의 출현으로 장거리 노선이 급증하면서 보편화된다. 현재 모든 항공사는 이륙하는 공항의 지상에서 조리된 음식을 압축해 냉장 상태로 보관했다가 식사 시간에 데워 승객에게 제공한다. 또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 힌두교도, 당뇨환자 승객을 위한 특별 기내식을 따로 마련해 놓는다.

한식 기내식은 1990년 대한항공의 비빔밥이 시초다. 인스턴트 밥 제품이 나오기 이전으로 승무원들이 일일이 보온밥통에서 주걱으로 밥을 퍼 그릇에 담았다고 한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위에 나물과 참기름을 곁들여 내놓으면 특히 외국인 승객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한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승무원이 밥, 토스트, 계란 등을 요리할 수 있는 조리 시설을 기내에 갖춘 최초의 항공사이다. 2000년부터 전기밥솥, 토스터기, 프라이팬을 기내에 비치했다. 미리 조리해 급속 가열한 밥이 아니라 기내에서 갓 지은 밥을 승객에게 제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최초로 요리사가 탑승해 승객에게 기내식을 만들어주는 '기내 셰프 서비스'를 2006년 선보였다. 일본 도쿄요리사협회장을 역임한 노리후미 후지오카 씨가 인천-로스앤젤레스 구간 1등석 승객에게 각종 해산물을 이용한 초밥 서비스를 제공했다.

3 최초의 여승무원은 모두 간호사

항공기 승무원의 필요성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항공기가 민간 수송 분야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제기됐다.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의 전신인 임페리얼항공(Imperial Airways)은 1927년 세계 최초로 기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당시 최초의 승무원은 스튜어더드, 즉 남자였다. 급사가 궁중과 귀족 계층에서 시중을 들던 유럽 문화의 전통을 따랐다. 또한 수하물 운송과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악화, 기체 이상의 위험 등에 대처하려면 체력이 강한 남자 승무원이 당연시됐다.

여승무원인 스튜어디스가 처음 탄생한 곳은 미국이다. 1930년 엘런 처치(Ellen Church, 1904-65)를 비롯한 7명의 간호사들이 유나이티드항공의 전신인 보잉항공운송(Boeing Air Transport)에 채용된다. 간호사를 여승무원으로 발탁한

것은 승객들의 비행 공포증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항공기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비행 공포증을 호소하는 승객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간호사 승무원은 멀미와 구토에 시달리는 승객에게도 안성맞춤이었다.

엘런 처치와 동료들은 3개월 시험 근무 동안 승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보잉항공운송의 정식 직원이 된다.





2007년부터 운항이 시작된 최첨단 슈퍼 점보기 A380은 거의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어 '하늘을 나는 호텔'로 불린다.

이후 여승무원 제도는 유행처럼 번져 미국은 물론 유럽 항공사 전체로 확대된다.

1930년대 미국 항공사들의 여승무원 채용 자격은 매우 까다로웠다. 간호사 자격증을 갖춘 25세 미만의 독신으로 몸무게 115파운드(약 52kg), 신장 5피트 4인치(약 160cm) 이하만 지원할 수 있었다. 당시 운항되던 프로펠러 항공기는 천장이 낮고 비좁아 기내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려면 체구가 작고 아담해야 했다.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업무는 매우 고됐다. 간호사 승무원들은 승객을 돌보는 일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맡아야 했다. 수하물을 나르고, 연료를 주입하고, 뼈격대는 좌석을 수리하고, 격납고에 비행기를 밀어 넣는 일까지 담당했다.

여승무원 변천사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의 역사이기도 하다. 미국 항공업계는 1970년대 초까지도 '여승무원은 35세 미만의 자녀를 두지 않은 미혼 여성이어야 한다'는 관행을 유지했다. 또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승무원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감봉이나 정직, 심지어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관행은 여성계와 여승무원들의 지속적인 권익 향상 노력과 소송 제기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다.

4 최초의 기내 화장실은 요강과 마찬가지로

항공 산업 초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화장실이 없었다. 항공기 뒤편 구석에 커다란 통을 하나 마련해놓고 일을 보았다고 한다. 남녀 구분 없이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에서 대소사를 치렀는데, 항공기가 중간 기착지나 목적지에 내리면 우리네 요강처럼 통을 들어내 씻어서 다시 비치했다. 초창기 여객기는 지금처럼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 기내 뒤편은 항상 수하물과 우편물이 쌓여 있어 민망함을 가려주었다.

객실과 분리된 고정식 변기, 즉 정화조가 등장한 것은 1940년대 중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객 운송용 항공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는 미국 더글러스사의 장거리 여객기 DC-6B에 최초의 정화조가 설치됐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수세식 화장실은 1950년대 제트 여객기가 등장하면서 선보였다. 변기만 수세식으로 바뀐 게 아니라 화장실에 세면 시설과 각종 비품까지 갖춰지기 시작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1등석 10명, 일반석 30여 명을 기준으로 화장실이 설치된다. 일부 항공사는 여성,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운영한다.

5 A380 최초 운항 구간은 싱가포르-시드니

지난 1세기 동안 항공기 기내 시설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좌석에 앉아서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스크린을 통해 라이브 위성방송을 선택해 즐길 수 있는 시스템까지 등장했다. 좌석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로 마주보고 앉았던 등나무 좌석은 이제 모두 앞을 보는 방식의 알루미늄 골조로 바뀌었다. 인락한 쿠션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인해 장시간 비행에도 피로를 덜 느끼게 되었다. 1등석 좌석은 등받이가 180° 수평으로 눕혀져 침대나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는 A380이다. 길이 72.7m, 높이 24.1m, 너비 79.8m 크기로 '하늘의 호텔'이라고 불린다. 기내에 라운지, 바, 헬스클럽, 쇼핑센터, 회의실, 사우루스까지 설치 가능하다. 최초 운항된 A380은 싱가포르항공이 2007년 10월 15일 에어버스 본사인 프랑스 툴루즈에서 인도해 싱가포르-시드니 노선에 선보였다.

싱가포르항공은 최초의 A380을 더블 침대를 갖춘 퍼스트클래스 12석, 비즈니스클래스 60석, 이코노미클래스 399석으로 운용했다. 첫 비행편 좌석은 옥션과 e베이를 통해 경매로 판매돼 퍼스트클래스의 경우에 정상 판매가의 30배가 넘는 10만380달러까지 치솟았다. 싱가포르항공은 경매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6 최초의 저가항공사는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세계 최초의 저가항공사는 1971년 설립된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lines)이다. 비행기 3대로 출발해 미국 최대 국내 여객 수송 항공사로 발돋움하는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 미국의 장기 불황과 9·11 테러 등을 겪으면서도 3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 항공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미국 델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슬로건은 '저렴한 요금을 통한 항공 여행의 기회 확대'이다. 슬로건처럼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 절감 기법을 도입했다. 우선, 기내식과 좌석 등급제 등 기존 항공사들의 일반적인 서비스를 없앴다. 음료와 간식은 돈을 내고 이용하게 했다. 또 보유 기종을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보잉 737 기종만 운항해 운용 및 정비 부문에서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냈다. 온라인 예약 판매를 통한 인건비 절감, 항공기 엔진 청소를 통한 연료비 절약도 저가항공사의 경영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사우스웨스트항공 가격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탄력적이라는 점이다. 구매 시점, 환불 및 취소 가능 여부, 요일 및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다양하다. 지난 여름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동하는 편도 항공권이 90달러에 한정 판매됐다. 상용 고객을 위한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일반 항공사와 다르다. 타 항공사는 승객이 비행한 운항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계산하지만,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운항 거리와 무관하게 8번 탑승할 경우에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성공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저가항공사가 우후죽순 탄생한다. 유럽에선 라이언 에어가, 아시아에서는 에어아시아가 최초의 저가항공사로 등장했다. 한국은 2005년 한성항공이 저가항공사 시대를 열었다.



사우스웨스트를 필두로 한 저가항공사의 등장은 항공 여행객이 급증하는 발판이 되었다. 사우스웨스트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항공사로 발돋움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콩코드는 '비운의 항공기'로 불린다. 대서양을 3시간만에 횡단해 유럽과 미국을 잇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떠올랐지만 높은 운용비와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 널리 환영받지 못했다. 더욱이 2000년 7월 샤를 드골 공항을 이륙하던 콩코드가 파리 북쪽 30km 지점에 추락, 승객과 승무원 113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나자 운항이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결국 2003년 10월 고별비행을 끝으로 날개를 접는다.



7 최초이자 최후의 초음속 항공기,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Concord)는 1976년 첫선을 보였다. 1월 21일 2대의 콩코드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과 런던의 히드로 공항을 각각 출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바레인에 닿았다.

콩코드는 마하 2.04 속도로 순항, 런던에서 뉴욕까지 비행하는 데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초에 최고 596m를 비행해 콩코드 승객은 마치 탄환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1995년 8월 16일 31시간 27분의 세계일주 비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콩코드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마감됐다. 지나치게 높은 운용비, 엄청난 소음 공해, 값비싼 항공 요금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초음속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연료 문제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더욱 부각됐다. 또한 항공기의 음속 충격파가 지상에 닿을 때 생기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공항도 제한적이었다. 콩코드를 구매해 운항한 항공사는 공동 개발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2곳뿐이었다. 대다수 항공사들은 콩코드를 상업적으로 부적합한 기종이라며 배척했다.

8 최초의 마일리지 제도 탄생지는 미국

아메리칸항공(AA)은 1981년 세계 최초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자사의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코드인 'AA'와 '어드밴티지(Advantage)'를 결합한 'AAdvantage'로 명명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AAdvantage'는 항공편 이용이 많은 상용 승객(Frequent Flyer)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마케팅 프로그램이었다. 탑승 거리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보너스 항공권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선 각 승객의 탑승 기록이 항공사 통합 정보망에서 전산 처리돼야 했는데, 아메리칸항공은 1959년부터 IBM과 제휴해 예약 시스템의 전산화를 이뤄 마일리지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없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컴퓨터 처리 시스템 및 여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였다.

'AAdvantage'의 회원은 마일리지 제도가 첫 시행된 1981년 5월에 28만 명이었으며, 최근 기준으로는 5천만 명이 넘는다. 28년 만에 약 180배가 증가한 셈이다. 일시적인 프로모션이었던 마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 선보인 아메리칸항공의 광고 포스터

펫 에어웨이는 세계 최초의 애완동물 전용 항공사다. 승객은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이다. 애완동물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승무원들이 15분마다 동물 승객들의 이상 유무를 살피며 안락한 비행을 도모해준다.

일리지 제도는 탑승객들의 호응이 뜨겁자 타 항공사로 번져나가 지금은 전 세계 모든 항공사의 표준 고객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9 최초의 애완동물 전용 항공사는 펫 에어웨이스

펫 에어웨이스(Pet Airways)는 세계 최초의 애완동물 전용 항공사다. 2009년 7월부터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5개 도시 간 운항을 시작했다. 설립자는 덴 위젤과 알리사 빈더 부부다. 두 사람은 장거리 항공 여행 시 애완동물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화물칸에서 수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안타까워 펫 에어웨이스를 설립했다고 한다.

펫 에어웨이스 항공기들은 애완동물 캐리어 50개를 실을 수 있도록 기내가 개조됐다. 또 개와 고양이 등 일부 애완동물은 실제 승객처럼 기내에 편안히 앉아 비행을 할 수 있다. 삭막한 화물칸이 아닌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는 아늑한 기내에서 승무원들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애완동물들이 배변을 자유롭게 하도록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캐리어에서 꺼내주며, 동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야간 위주로 비행하는 등 모든 운항 프로그램이 애완동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펫 에어웨이스 취항 공항에는 애완동물 전용 라운지도 운영된다.

10 생체 정보 인식 탑승 시스템 올해 첫 등장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탑승 시스템은 에어프랑스가 2009년 3월 최초로 선보였다. 이른바 '스마트 보딩(Smart Boarding)'이다.

에어프랑스가 파리-암스테르담 구간의 플라잉 블루 마일리지 승객을 대상으로 도입한 스마트 보딩은 게이트 앞에서 길게 줄을 서지 않고 전용 통로를 통해 곧바로 탑승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보딩 카드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터미널에서 발급되며, 승객 정보(이름, 지문, 플라잉 블루 마일리지 카드 번호)가 카드에 입력된다. 승객이 항공편 체크인(인터넷, 키오스크, 휴대전화, 공항 카운터 등) 이후 스마트 보딩 카드를 전용기에 넣으면 카드 뒷면에 보딩패스가 감열 방식으로 인쇄된다. 이를 가지고 게이트 옆 전용 통로를 지나면 스마트 보딩 기계가 카드 저장 정보를 읽어 승객 지문과 비교해 동일한 여부를 확인한다. 에어프랑스에 따르면 승객 정보는 스마트 보딩 카드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저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R



에어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스마트 보딩 카드